

전남은 울고 싶다

미디어법 의결을 강행한 한나라당이 오는 25일까지 처리할 23개 민생법안 항목에 전남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포틀러원(F1) 지원법'을 배제시켰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23개 최우선 처리 민생법안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포함해 지역차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세상가 살리기(재세정장육성특별법), 통신요금·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약력사제 근절(대부업등록·금융이용자보호법), 상조 피해 방지(할부거래법) 등 '서민살리기 5대 법안'과 비정규직법, 공무원연금법 등을 '직권상정 직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후속법안'으로 선정했다.

이 법안 목록에는 또 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청년실업해소특별법·직업안정법·고용정책기본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초중등교육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관한특별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수도법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 앞에는 민생문제란 큰 산이 있다"며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오로지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자"

‘대구 육상’ 넣고 ‘전남 F1’ 빼고
與 단독국회 처리 법안 지역차별

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남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일본일초를 아껴 삼일위법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 같이 민생법안 처리를 들고 나온 것은 무리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2011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포함되고 'F1 지원법'은 제외됐다.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지난 6월11일 한나라당이 선정한 '30대 긴급민생법안'에도 없었던 것으로 혼란스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만금 세계 명품도시 육성 발표
J프로젝트는 '하세월' 담보 상태

전남도의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가 전북 새만금개발사업에 가로막혀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J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발목 잡기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J프로젝트와 지리적적으로 가깝고 성격도 비슷한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발판삼아

빠른 속도로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을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실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은 농지비율이 기존의 70%에서 30%로 축소되는 등 다목적 복합용지로 개발된다. 또 전체 2만8천300ha의 용지는 산업용지와 관광·레저용

지, 국제업무용지 등 8개 용도로 나뉘며, 전체면적의 23.8%인 중심지역(6천730ha)은 세계적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 베네치아와 같은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새만금 개발계획은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전남도의 J프로젝트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J프로젝트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개발 용도 가운데 ▲산업 ▲생태·환경 ▲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 용지 등은 J프로젝트 대상 용지의 개발용도와 큰 차이가 없어, 투자자 및 개발사업자 유치과정이나 개발완료 이후 관광객 유치 등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조기착공까지 약속하며 새만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는 달리 전남도의 J프로젝트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총 87.92km(2천660만 평)인 개발대상 면적을 30% 안팎으로 축소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는 J프로젝트 사업부지 가운데 한 곳인 송천지구에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강행, 외자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바른 운전으로 2015 U대회 성공”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린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바른운전 결의대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영렬 광주지검 검사장, 대중교통 운전자 등 300여명이 바른운전을 다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DJ 인공호흡기 다시 부착

폐색전증 발병... 병원측 “점차 회복 중”

서울 세브란스병원은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경 폐색전증이 발병해 집중치료실에 다시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라며 “현재는 건강 수치가 점차 정상으로 회복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전 대통령을 만났다”며 “인공호흡기를 다시 부착한 데 대해 우려가 많은데 담당 의료진은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크게 악화되지 보다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4시경 상태가 호전되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바 있다.

폐색전증은 다리나 골반 부위의 정맥에 생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해 폐동맥을 막는 현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월드스타’급 디자이너 9월 광주에 다 모인다

디자인비엔날레 48개국 519명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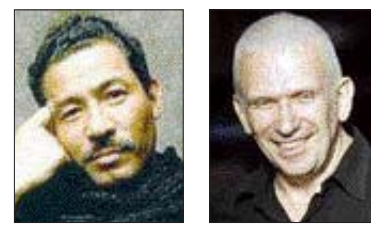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을 주제로 오는 9월8일 개막하는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는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 독일의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영국의 천재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 등 48개국에서 519명이 참가한다.

또한 노키아, 파나소닉 등을 포함 내로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참여, 미래 디자인의 세계와 가치를 한눈에 보여주게 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옷, 맛, 집, 글, 소리 등 5개 주제전과 살림, 살림, 어울림 등 3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작가와 1천951점의 작품

일부를 발표했다. <관려기사 12면> 은병수 총감독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패션, 가전, 컴퓨터, 자동차 등 특정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국제 디자인 이벤트와 달리 디자인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며 “이번 대회는 21세기 아시아 문화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높여주는 동시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소설가 이외수, 영화감독 김기덕, 무용가 안은미, 시인 황지우 등 디자이너가 아닌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발상이 가미된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세이 미야케 장 폴 고티에



피터 슈라이어 제이미 올리버

오는 9월18일~11월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남구 양림동 이장우 고택 등 광주 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휴대 패키지
예약료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50th
사랑을 만들어가는 519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9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작용, 일산화수소기 반응, 불활성화
- 해독, 체내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통증,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호흡기,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중 증상의 완화
- 허위, 과다한, 수축제인 수축강화

아연의 보급